

# 수의계약 지역업체 최우선 선정

### 남원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위한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운영계획 시행

남원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장기간 경기침체 및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고자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으로 공사·용역·물품 발주시 사업구상 및 품의 단계에서부터 지역업체 생산품과 지역업체를 최우선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수의계약 업체 선정 기준은 지역업체(업체 및 대표자의 관내 주소 등록)

최우선 선정, 현장 민원 최소화 및 민원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업체, 신속한 하자보수 이행과 철저한 현장 안전 관리 업체, 기타 지역발전 기여가 큰 업체 등이다.

다만 관내에 주소만 두고 있거나 지방세 등 상시 체납 업체, 대금 체불 및 안전사고 등 민원이 발생한 업체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해 부실 업체를 철저히 배제하고, 서류상으로는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가려내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수주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수의계약 내용은 물론 대금지급 등을 홈페이지 내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실계단계부터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물품을 최우선 반영하여 적극 구매할 계획이며,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역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북대 지역산업학과 제1회 졸업생 배출

### 남원시·전북대 협력 운영

남원시와 전북대학교가 협력해 운영하는 남원시에 소재한 재교육형 계약학과인 전북대 지역산업학과가 25일, 남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제1회 졸업생 13명의 학위수여식(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번 졸업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과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황인섭 학과장을 비롯해 졸업생, 재학생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남원시는 2019년 지역의 전략산업 인재 육성 및 교육 경제 성장도시로의 발판 마련을 위해 전북대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 4년간 주경야독하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미래 지역산업 인재들로 글로벌 캠퍼스 추진과 함께 우리 남원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2027년 개교 예정인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와 연



남원시와 전북대학교가 협력해 운영하는 남원시에 소재한 재교육형 계약학과인 전북대 지역산업학과가 25일 남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제1회 졸업생 13명의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계해 전북대 지역산업학과에서 교육 받고 지역특화산업에 취·창업해 남

# 남원시, 디지털관광주민증 가맹점 추가 모집

남원시는 25일부터 오는 3월 7일까지 2025년 디지털관광주민증 가맹점을 추가 모집한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이란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원시는 2023년에 선정되었으며, 대상지는 남원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관광객이 대한민국 국적구석 웹사이트에서 발급해 사용할 수 있고,

올 2월 현재 발급지는 13만4,802명으로 남원 정주민구 7만5,604명 대비 173%에 해당한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관광객은 관내 체일·숙박 7개소, 소풍·식음 23개소 총 30개의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관광과 관광마케팅팀(063-620-6174)에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에서 지원하는 페렘구 주민증 발급을 위한 홍보물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한의치매예방사업 참여자 모집

### 순창군 치매안심센터, 한의원 한약·침구 치료 지원

순창군 치매안심센터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한의치매예방사업을 실시하며,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치매 위험이 높은 경도 인지장애와 인지 저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순창군헌의사회와 협력해 운영된다.

사업 모집 대상은 순창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중 경도인지장애자(1순위)와 인지저하자(2순위)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우선 선정된다.

선정된 어르신들은 지정된 한의원에 한약과 침구 치료를 주 2회, 4개월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70만

원의 치료비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어르신은 사전 예약 후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치매선별검사와 신경심리검사를 포함한 약 1시간가량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정원이 충원될 때까지 진행된다.

신청과 문의는 순창군 치매안심센터(순창의료원 2층) 방문 또는 전화(063-650-5275~527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정 한의원은 순창읍에 위치한 누가한의원, 은혜한의원, 원광한의원, 우리한의원, 순창한의원을 비롯해 동계한의원과 북동한의원이 포함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모두의 보훈, 역사 속 태극기' 특별전시회

### 국립임실호국원·전북특별자치도청서 개최

국립임실호국원(원장 김상우)은 106주년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모두의 보훈, 역사 속 태극기'라는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특히,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로 '보훈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보훈·국가등록유산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해온 독립기념관에 소장된 태극기를 한자리에 모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오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개최한다.

국립임실호국원 제2총령당에서도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과 대한민국의 독립과정을 스토리로 엮은 전시회를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김상우 국립호국원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오늘날 광복이 있기까지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공헌과 희생을 일상에서 되새기며, 선열들의 고귀한 나라사랑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 남원시, 1961년생 시민 대상 페렘구군13가 무료 예방접종

남원시는 1961년생 남원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연말까지 페렘구군13가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페렘예방접종은 1961년생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백신은 국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접종하는 페렘구군23가와 병·의원에서 유료로 접종하고 있는 페렘구군13가이다.

이번에 남원시에서 지원하는 페렘구군13가 예방접종은 2025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961년생 중 남원시 주민등록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한다. 1961년생 무료 접종은 올해에 한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접종 불가해 본인이 대상자라면 관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올해 안에

접종해야 한다.

페렘구군13가 접종 1년 후 페렘구군23가를 접종하였을 경우 단독접종한 경우보다 높은 항체가 형성되며, 1961년생은 올해 페렘구군13가를 무료로 접종하고, 내년에는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무료로 접종하는 페렘구군23가 예방접종을 하면 된다.

단, 병원에서 페렘구군13가 예방접종을 이미 했다면 재접종은 불가하다.

남원시보건소 최병은 건강생활과장은 "이번 무료접종이 1961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페렘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높아 예방을 위해 꼭 접종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 미신고 반려견 등록 내용 집중 홍보

남원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반려동물에 대해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대형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이미 등록했다더라도 동물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 상태(유실,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 국가정보동물보호시스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등록 동물을 분실한 경우는 10일 이내 및 소유자 변경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다문화가족 예비 학부모 교육 진행

임실군가족센터(센터장 이계연)가 지난 21일 다문화가족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예비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김예선 강사(전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교육사회학 분야), 임실초등학교 교사)가 진행했으며, 다문화 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자녀의 학습 발달, 심리적 지원 방법,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모 역할의 중요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 강사는 이론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예비 학부모들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고, 자녀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임실=진흥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